

부산종친회 제46차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부산종친회(회장 권성용) 제46차 정기총회가 지난 6월 11일 부산직심자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코로나에도 400여 족친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대종회 권해옥 회장은 화환으로, 합천·산청 등 인근 종친회에서는 여러분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축하하였다.

권영현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국민의례를 하고 태사공 시조님께 망배를 올린 다음, 덕산(영훈) 자문위원의 종시 낭독, 송암(성용) 회장의 참석 인사 소개에 이어 상흘 전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장학생 5인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날 송암(성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내빈과 종친들께 코로나에 시달린 세월에 대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3년 만에 뒤늦은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인사에 덧붙여, “비록 세월은 변해 있지만 숭조와 애족을 추구하는 종친회를 근간으로 근원을 알고, 조상을 숭상하며, 일가끼리 어울려 친목과 정리(情理)를 도모해 쌓아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젊은 자제들에게 종친회 출입을 권유하는 등 앞으로 종친회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산종친회의 위상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



해 더욱 열성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이어서 직전 회장인 원광(영호) 명예회장은 지난 4년간 회장 재임 시절을 회고하면서 코로나를 이기고 전국 1등 종친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역병으로 침체된 종친회의 부흥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으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종회 상임부회장 자격으로 격려사에 나선 송계(길상) 고문도 종친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변치 않는 한마음으로 종친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죽사에 나온 태방 전 국회의원이 우리 권문의 단합을 위해 ‘안동! 안동!’을 선창하자, 관중은 ‘권문! 권문! 권문!’으로 호응하고, 박수로 박자를 맞추며

파이팅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뒤이어 감사보고와 의안 상정을 통하여 제45차 회계연도 결산과 제46차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 부녀회 합창단과 함께 권문의 노래를 제창하고, 운산(중원) 자문위원장이 선창한 만세삼창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중식 시간 이후에는 초청 가수의 노래와 족친들의 신청곡을 들으며, 중간 중간 푸짐한 경품 추첨을 걸들여, 자리를 함께한 족친 모두가 흥겹게 어울려 우의와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마무리에는 참석 족친 모두에게 재문 장년회장이 협찬한 고급 티월과 오숙 세흥병원장이 허사한 면 손가방을 선물하여 도처련의 총회에 기쁨을 더하였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한글과 인터넷판을 겸한 동정공파보를 만듭니다

동정공파는 안동권씨 10세 15대파 중 제5파 휘 체달을 파조로 전국과 해외에 산거하는 2만 8천여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 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1년 9월 30일이었는데
종종집행부 임원진의 부득이한 사정과 수단미납 종원의 추가납단을
위하여 2022년 7월 3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수단비[등록비]는 동정공파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정공파보소 : <36709> 경북 안동시 육사로 333 펠리시아 101동 303호
사무국장 권영화 010-7288-2510. 서울연락처 안동권씨종보사 02) 723-44480
e-mail 개미골 kwongemigol@hanmail.net
동정공파카페 <https://cafe.daum.net/andongkwond>

안동권씨동정공파보편찬위원장 종회장 권오수

문종대왕 570주기와 현덕왕후 581주기 기신제향 봉행

조선왕조 제5대 문종대왕(1414~1452) 570주기와 현덕왕후(1418~1441) 581주기 기신제향(忌辰祭享)이 동구릉 내 현릉(顯陵)에서 6월 10일 11시 30분에 제향관으로 조현관 이범수(李範洙), 아현관 권영도(權寧度, 부정공파회장), 종현관 이운상(李雲相), 찬자 이용태(李鎔太), 대축 이도재(李道宰), 해설 이병학(李炳學) 등으로 분방하고, 권용주 마애선생유적보존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용만 교수, 권병정 양평종친회(설립 추진 중) 사무국장 등 참석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부정공파 후손 40여 명은 이른 새벽에 영애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현릉 기신제향에 참석했다. 그동안 기신제향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제향을 봉행하지 못하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2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제향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주관하며,



그러나 세조에 의해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자 현덕왕후도 폐위되어 능이 파헤쳐지고 석양과 난간석주 등 의물(儀物)이 철거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중종 8년 현덕왕후가 복위되자 60여 년 동안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현덕왕후의 유해는 동구릉에 위치한 문종의 현릉 오른쪽 언덕에 안장되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복야공파 신한문중(新漢門中) 시조묘소 참배

복야공파(僕射公派) 신한문중(新漢門中) 권태유(權泰裕) 회장 외 40여명은 지난 6월 12일 6시에 대구를 출발하여 세거지 청송 진보면 광덕리(신한)에 들러 고향에 계시는 문중원들과 합류한 후 10시경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에 도착하여 대종회 안동사무소 권오의 국장의 안내를 받으면 준비해 온 주·부·포로 시조 태사공 묘소와 낭중공 단소를 참배하였다.

일행은 시조 태사공의 훈업과 묘소의 수호과정 및 낭중공 단소 이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능동재사를 둘러보면서 재사설립과 그 동안 여려 번의 화재와 증건 등에 대한 사적(事跡)을 들으면서 다음 행선지은 청광록대부 주밀원부사 상서좌복야상장군이신 복야공과 파조부군 단소를 참배하였다.

신한문중은 복야공파 11개 지파 중 4번째인 판서공(譖: 15세) 계열로 6세손인 귀암공(龜巖公: 휘: 덕조德操, 21세) 후손들로 판관을 지내시던 공께서는 1545년 종숙 충정공(忠定公) 휘(諱: 별檄)께서 사령(士英)이며 증조할아버지는 호군(護軍公, 휘: 곤琨)이시다.



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다.

공의 부친은 한송공(寒松公) 휘(諱: 응희應禱)이고 할아버지는 금계공(琴溪公) 휘(諱: 사영士英)이며 증조할아버지는 호군(護軍公, 휘: 곤琨)이시다.

일행은 축협에서 운행하는 “북향”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경 다음 행선지인 충정공(忠定公) 묘소를 참배하여 봉화 닦실마을로 향했다.

안동사무국장 권오의

청와대의 위치는 여하(如何)한가



※용산 땅의 역사

봉고침공시 :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창기지 설치
한양 천도 후 : 군수를 담당하는 군자감
임진왜란 때 : 왜군이 후방병장기지를 조성
병자호란 때 : 청나라 군대 진영 설치
임오군란 때 : 청나라군 주둔 (군지휘소 설치)
청일전쟁 후 : 일본군 주둔 (대륙 침략 전초기지)
6·25 이후 : 미군기지

이제 대한민국 품으로 역사적 오욕의 자리가 아니라 이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란 뜻이다.

서울에서 한강이 환포(環抱, 돌아 들어온다는 의미)한 곳은 용산 밖에 없다. 용산 앞 한강의 노들섬은 한강물의 유속을 막아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물이 환포하면 땅은 단단해지며 기(氣)가 발생한다. 용산은 기(氣)가 모인 곳이다. 국방부 청사는 용산의 중심지이다. 서울에서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도 좋은 땅이지만 전체적으로 면면을 고려했을 때 용산과 같은 한강이 환포하여 땅의 기가 발생하는 곳은 없다. 물이 환포하면 땅은 단단하다. 땅은 단단해야 수기(水氣)가 조운(調潤, 잘 어울린다)이 되어 기(에너지)가 발생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중심 국방부 자리로 이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 아닐까?

심산(尋山) 권오록 경주풍수지리학회 회장

010-2471-8676

청와대의 위치는 북한에서 진행한 용맥이 멈춰서 입체구조를 만들어 북악산(北岳山)을 형성하였다. 북악산은 정두(頂頭)에서 (입체구조) 주산(主山)이 청와대 쪽으로 고개를 숙이지(垂頭) 않고 고개를 돌려 삼청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 자리인 북악산의 면(面, 앞쪽)이 아니고 등(背) 뒷쪽에 해당된다. 산의 등(背) 쪽은 음양 교배의 생성이 불가하다. 또 산의 뒷쪽은 기(氣, 에너지)가 응축되지 않는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청와대 뒷쪽에 바위(암석巖石)가 크고 많아 살기가 강한 곳이 되어 청와대를 압도하고 있다. 경복궁은 북악산의 살기를 피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온몸으로 살기를 전부 받고 있다. 풍수적 형기학적(形氣學的)으로 볼 때 산의 정맥(正脈)이 아니고 등(背)에서 내려온 지각(支脚) 옆구리 곁가지에 해당된다. 일명 편용(偏龍, 기울어진 산)이다. 이리하여 주산에서 벼름받은 곳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옛말에 육지기길흉(欲知其吉凶)은 선간(先看) 3대란 말이 있다.(터의 길흉을 알고자 하거든 이전에 살았던 3대를 보라했다.)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들의 행적을 살피 것) 지금까지 논한 것은 풍수학의 형기학적(形氣學的)이며 방위적 길흉관계인 이기학적(理氣學的)으로 논하면 북악산의 입체구조인 정두(頂頭)에서 건해(乾亥)로 직남(直落)하였고 과협처(過峽處)에서 신술(辛戌) 경태(庚兌)로 회신(回身)하여 간인(艮寅)으로 재